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1. 머리말

‘세계관’이 인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이라는 시간 개념을 함축한다면, ‘천하관’은 일차적으로 현세에 있어 국내외의 현실적인 정치질서에 대한 인식을 담은 것.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세계관이 같은 시대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천하관은 객관적인 세계의 현상을 보다 평면적이고 집단적 단위로 파악한 것. 천하관은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역은 아님. ‘천하’라는 말은 원래 중국의 춘추시대에 제기되어 전국시대, 진, 한 시대를 거치면서 일정한 내용을 갖추게 됨. 이 말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전파되면서, 각국인들이 자국의 위치 및 인접국과의 관계를 논하는 데 이 말을 활용했음. 고구려의 경우, 5세기 광개토대왕비와 모두루묘지 및 중원고구려비 등 금석문에 일정한 천하관을 개진함.

이 글은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이해해보고자 함. 먼저 고구려인이 자기 나라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지를 살피고, 이어 인접국과 고구려와의 관계,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고구려국의 위치에 대한 고구려인의 인식, 마지막으로 삼국민 간의 관계를 고구려인이 어떻게 의식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2. 고구려의 자국 인식 : 천손국 의식 / 1차 천하

‘천하’라는 말의 용례는 모두루묘지¹⁾에서 확인. 고구려 시조의 신성한 기원을 강조하는 문구와 함께 등장하는 ‘천하’는 ‘사방’과 같은 의미로서 ‘온 세상’이라는 뜻. ‘사방’은 광개토왕릉비(415년)의 ‘사해’와 같은 의미. ‘사방’과 ‘사해’가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포함한 넓은 공간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을 때, 그 말 자체에는 중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 고구려왕은 ‘천손’으로 정치적으로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이며, 또한 천상과 지상을 매개할 수 있는 최고의 사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됨.

이와 같은 고구려의 ‘천’ 개념은 중국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모습. 우선 중국의 ‘천하’관은 정치적으로는 ‘천’을 대리해 천명을 받은 천자가 지배하는 지역을 뜻함. 그 개념상 천자의 지배는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작동.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 ‘천제’는 천명을 받은 보편적 지배자라기보다는 왕실의 혈연적 조상신에 가까움. 그 결과 시조(동명왕) 이외에 천자라는 용어가 쓰인 사례는 문헌상 보이지 않음. ‘천손’이라는 말은 8세기 발해의 문왕이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서 사용하기도 함.

3. 고구려의 인접국 인식 : 조공, 수천, 화이 / 2차 천하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와 인접국의 관계를 ‘조공’관계로 표현.²⁾ 하지만 4세기 전반에 걸쳐 백제, 동부여와 실제적인 조공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북부여, 신라와는 일정한 조공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신라의 경우, 금과 같은 특산품을, 때로는 왕이 직접 고구려에 입공하여 조공을 행함. 고구려는 그 답례로 조공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원병을 파견. 그러한 지원이 여의치 않을 때는 조공국의 왕실을 고구려 내지로 망명하도록 허락.

중원고구려비에서는 조공국과 고구려의 관계를 ‘수천’(守天)이라고 표현. ‘수천’은 천도를 또는 천

1) 모두루는 광개토대왕대에 북부여 지역에서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활약하다가 장수왕 때에 죽은 중급 귀족이다.

2)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속민으로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제의 뜻을 지켜나가자는 의미. 또 그러한 조공관계를 맺은 국가와 고구려의 관계를 '화'와 '이'를 통해 표현하기도 함. 중원고구려비에서 신라는 '동이'/'매금토'(寐錦土)로 기록.

하지만 당시 고구려 영역과 신라 영역 사이에 당대의 중화/이적에 버금갈만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종족적으로도 당대 고구려의 '구민'과 새로 편입된 '한'(韓)과 '예'(濊)가 차이가 있었음. 중원고구려비의 '대왕토'와 '매금토'라는 표현은 고구려왕의 지배권이 확립된 지역과 아닌 지역을 분별하는 의미. 물론 이와 같은 분별이 역사적 전개에 따라 중화/이적과 유사한 차별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4. 고구려의 위상 인식 : 황제, 가한, 대왕 / 3차 천하

광개토왕릉비, 모두루묘지, 중원고구려비 모두 임금의 칭호는 '황제'가 아닌 '왕'. 당대 중국에서는 유목민 왕조들이 북중국에 들어가 칭제하는 양상이 나타남. 물론 <수서>에 고국원왕을 '소열제'로 칭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노태돈에 의하면 이는 오기. 그렇다면 왜 고구려는 황제를 칭하지 않았을까?

조공 책봉관계에 따라 조공국인 고구려가 예에 어긋나게 칭제하게 되면, 중국왕조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며, 피책봉국인 고구려는 중국을 황제국으로 자국은 제후국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당대의 조공 책봉 관계는 이념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극히 명목적인 것이자 실리적인 목적에 의해 행해짐. 5-6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다원적인 상태. 고구려 국내에서 칭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왕조가 어떠한 간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당대의 칭제 사례를 보면, 유목민 왕조가 중국의 일부(만리장성 이남)를 영유하고 있을 때 이루어짐. 만리장성 이북의 제국은 '선우'나 '가한'을 칭함. (고구려는 '선우'를 칭하지도 않았음) '황제'라는 말은 중국적 군주관의 결정체. 군주의 칭호로 황제를 칭한다는 것은 중국사회의 일각을 지배하고 나아가 중국 천하의 제패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고구려는 4세기에 접어들면 한사군을 점령하나, 이 지역은 원래 고조선의 영역이었음. 또 고구려는 5세기에 평양천도하면서 북중국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를 경영하는 데 골몰. 고구려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군주를 오래전(기원전 4세기 경)부터 '왕'이라고 불려왔는데, 이를 굳이 황제라는 이질적인 단어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초기 고구려의 군장(가, 간, 한)이 '왕'으로 변모한 것이 왕망 시기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음.) 고구려의 왕호는 고조선 이래로 왕호가 최상의 군주의 칭호로 쓰여져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의 천하는 고구려의 천하, 중국의 천하, 북방 민족의 천하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음. 여러 천하들 중 고구려의 천하에서는 고구려가 중심임.

5. 고구려의 삼국의식 : 천하관과 동류의식 1-2-3차 천하의 다이내믹스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속민'이라고 규정됨. 이와 같은 서술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구려인들이 백제와 신라를 마땅히 복속되어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하지만 이는 동시에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천하'에 포함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 '왜'에 대한 토벌전을 강조하는 것은 고구려의 천하에 침범한 '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노태돈의 추정. 아직 백제-신라에 대한 의식이 동족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6세기에 등장하는 동일체의식이 형성되는 과정 상에 나타난 원초적 의식이라고 볼 수는 있을 듯.